



코람뉴스 (2021 년 12 월)



갈 길 먼 치매 치료제...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60% 이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알려졌으며, 치매란 뇌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 환자의 50~70%가 '알츠하이머 치매'이며 혈관성 치매가 17%, 루이체-파킨슨병 치매가 3~4%, 전두엽 치매와 알코올성 치매가 각각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 치매 유형인 알츠하이머병은 점진적이고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병리조직학적으로 뇌의 전반적인 위축, 뇌실의 확장, 신경섬유의 다발성 병변(neurofibrillary tangle, NFT)과 초로성 반점(neuritic plaque) 등의 특징을 보이며 기억, 판단, 언어능력 등의 지적인 기능의 감퇴 및 일상생활 능력, 인격, 행동 장애 등의 임상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뇌 신경세포 바깥에 있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죽이게 된다. 이것이 기억 및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것이 치료제 개발을 더 어렵게 하는 점이기도 한다.

이처럼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 치매를 완벽히 제압하는 치료제는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허가된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메만틴(각각 성분명)' 등 4개뿐이다. 다만 이들 약물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증상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며,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아두카누맙이 승인됐지만 효능이나 부작용 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치료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아직 치매치료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물질, 치매 치료

그동안 인류가 연장해 온 수명을 깡그리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치매(알츠하이머병)라는 존재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간 확고부동했던 이 명제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켄백스앤카엘의 신약 후보 물질 'GV1001'을 통해서다. 한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 4 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4 개국 5 개 지역 연결 화상회의가 진행됐다. 최근 이루어진 회의는 향후 의학계의 알츠하이머병 연구 방향과 임상 진행 상황, GV1001의 작용 기전 및 향후 진행될 임상시험(국내 3 상, 미국·유럽 2 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제 1 차 켄백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자문위원회'다. 당초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 때문에 온라인 회의로 대체됐다.

이날 참석한 해외 석학들은 저마다 GV1001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신경연구소 제프리 커밍스 교수는 "GV1001은 다양한 타겟에 작용하는 물질"이라며 "매우 성공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증상 평가 척도인 신경정신행동검사(NPI)의 창시자다. 미국 버틀러병원 스티븐 살로웨이 기억노화센터장은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논의가 활발한 시기에 GV1001은 유망한 약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필립 쉘튼 알츠하이머센터장은 "논문 발표, 유럽 임상 등 향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돕겠다"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GV1001은 지금까지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조절한다. 뇌 신경세포 표면의 베타아밀로이드의 침착, 뇌 신경세포 안의 타우 단백질 엉킴, 신경 염증을 막아주고 여기에 항산화·항노화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전달물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성이나 부작용 우려도 덜었다.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닌 질환 발생 기전에 접근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계 최초의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가까운 미래에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나오리라는 희망을 걸어볼까요??

뇌운동이 가장 많이되는 것은 사람과의 직접하는 대화라고 합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1 층에서 모르는 주민을 만나면 대화를 시도해 보는 연습을 하기로 해요..



♠♠♠♠♠ 12 월 생신을 축하합니다. ♠♠♠♠♠

**김정교님 (312 호, 8 일), 이그레이스님 (101 호, 4 일),
이수잔님 (413 호, 25 일), 이영조님 (209 호, 10 일),
임순정님 (205 호, 20 일), 박진선님 (202 호, 28 일)
윤명렬님 (402 호, 13 일), 윤향님 (203 호, 25 일)**



알림

♣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 몸도 움츠러지게 되고,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출시에는 항상 **장갑, 모자, 스카프**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미끄럽지 않은, 발에 편안한 운동화나 겨울부츠**를 착용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 2022 년 수입증명 : 매년 11 월말이나 12 월초에 소설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다음해의 수입에 대한 편지가 옵니다. 일년내내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챙겨두세요.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져 오시면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 코비드 백신을 3 차까지 맞으셨지요? 백신카드는 아이디만큼이나 중요한 서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보관하시며,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보여주세요. 복사하여 화일에 넣겠습니다.

♣ **12 월 24 일 부터 1 월 2 일까지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1 월 3 일부터 근무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람에 엔지니어로 정인호선생님이 12 월 1 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어요...

나이 : 1962 년 11 월 5 일...

(아무리 동년배라고 하더라도 '인호야' 라고 부르시면 안됩니다! '정선생님' 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다스려주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취미 : 가구만들기... 정선생님 사무실에 가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가족 : 미인이면서, 착한 사모님과 아들이 둘 (34 살, 30 살) 모두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참한 색시감이 어디 있을까요??

코람 빌딩 어디든지 공구함을 밀고 다니는 분이, 바로 코람 엔지니어 정인호선생님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정선생님의 사무실이 이렇게 변신하였어요!!!!



유머 한마당!!

없다 시리즈 :

- 10 대에는 “()”이 없다.
- 20 대에는 “답”이 없다.
- 30 대에는 “집”이 없다.
- 40 대에는 “()”이 없다.
- 50 대에는 “일”이 없다.
- 60 대에는 “()”이 없다.
- 70 대에는 “이”가 없다.
- 80 대에는 “()”가 없다.
- 90 대에는 “시간”이 없다.
- 100 대에는 “다 필요”없다.....



정답 : 철, 돈, 낙, 처,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들도 너무 많지요???



편치만은 았았던 2021 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직은 안심할수 없는 코비드 19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매일의 일상에 대처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람 빌딩 주민분들 모든분께 이만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겨울철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합니다.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삼가시다.



외출전 :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
(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시 :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 Elf's Shoe (엘프의 신발), Holiday Light Bulb (전구), Heart (하트), Candy Cane (사탕막대기), Horn (뿔), Bell (종), Mitten (빙어리 장갑), Stocking (긴양말)

Santa's Toybag

Can you find the items on the right hidden in the picture below?

